

취망

늘푸른장학회 소식지

APRIL 2012

Vol. 1 창간호



늘푸른장학회
EVER GREEN YOUTH & PEACE SCHOLARSHIP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이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려





희망

늘푸른장학회 소식지
APRIL 2012
Vol. 1 창간호



- 발행일 2012. 4. 9
- 발행처 늘푸른장학회
- 주 소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8-2
팍스빌딩 2층
- 홈페이지 <http://cafe.daum.net/pusan.apmp>
- 편집·인쇄 디자인 주 051-441-2692

CONTENTS

- 04 격려사
- 05 발간사
- 06 설립목적 · 마크디자인 설명
- 07 사무국 현판식을 마치고..
- 08 임원 워크샵
- 10 월동김장 나눔사업
- 12 위드아시아, 캄보디아에서
- 어린이 공부방·화장실 건립 봉사
- 13 캄보디아 '구호현장 방문'
- 14 송년의 밤 행사
- 15 장학금 수여식
- 16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소감
- 19 2012 향후 일정
- 20 늘푸른장학회 추진경과보고
- 21 회칙 중요사항
- 22 늘푸른장학회 NEWS
- 23 늘푸른장학회 조직도 · 후원자

ENCOURAGEMENT_ 격려사

보람되고 가치있는 결실을 맺어 가는 것 같습니다.

늘푸른장학회 상임고문 김 호 정



늘푸른장학회의 소식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동안 8명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지난 겨울에는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김장 김치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 빈민 구호사업에도 참여하여 일조를 하고 왔습니다. 늘푸른장학회가 정식으로 창립한 것은 지난 해 9월입니다만, 1년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장학회의 정신에 걸맞는 사업들을 이처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이와 같이 늘푸른장학회는 내실을 충실히 다져온 것 외에도, 현판식에 이어 이번에 소식지까지 발간하여 외형도 제대로 갖추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장학회의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아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경험 미숙에서 온 어려움이 있었으며, 회원들의 관심과 열성이 넘쳐 다소의 의견대립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는 가운데 회원들 간 관계는 더욱 공고히 다져졌고 장학회를 운영하는 노하우를 체득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이, 어느 듯 어려움이 지나가고 보람되고 가치있는 결실을 맺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순조롭고 탄탄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지 않아 재단법인 설립도 가능하고, 내실있는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회원들 간 화목도 한층 돈독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의 늘푸른장학회가 있기까지 조용현 회장님의 물심양면의 헌신적 노력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외 전기수 전문위원과 이상진 총무의 희생과 봉사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박난희 감사를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애정과 성의도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참여와 격려에 감사드리며, 소식지의 창간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PUBLISHED _ 발간사

우리 회원들에게 더 큰 삶의 보람을 얻고자 합니다.

늘푸른장학회 회장 조 용 현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 과정 수료생들이 주축이 되어 탄생된 늘푸른장학회 소식 창간지가 “希望”이라는 이름으로 첫발을 내 뒀습니다.

늘푸른장학회 회원 여러분, 만엽동근(萬葉同根)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있는 많은 잎들도 그 뿌리는 하나다.”라는 말처럼 우리 회원을 비롯한 최고 관리자 과정 동문들은 부산대학교라는 거대한 거목의 뿌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봉사과 헌신을 통하여 근본이 같은 생각과 그 위에 한마음으로, 서로가 왕래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정보를 공유, 교환하면서 자아실현(自我實現)을 추구하고 있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2년전, 최고관리자 과정 45期, 46期, 47期 합동 Work Shop에서 장학회 깃발을 올린 이후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서로를 조금씩 알아 가며 함께 공감대를 형성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 서서히 그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이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늘푸른장학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순조로운 항해(航海)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신 김호정 상임고문님,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의 양석곤 신도 신성상사 대표님, 43期, 44期 선배님들 외 많은 동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도움에 늘푸른장학회 회장으로서 잠깐이나마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늘푸른장학회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굳건히 헤쳐 나가는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에게 물질적 도움뿐만 아니라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일을 통하여 우리사회가 더 밝은 사회가 되는데 일조하고, 우리 회원들에게 더 큰 삶의 보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제 出帆式을 막 마치고 妻夫出港하는 늘푸른장학회이지만, 우리는 보람과 幸福이라는 거대한 貨物을 가득 싣고 더 넓은 바다로 헤쳐 나갈 것 입니다.

오늘 창간되는 “希望”이라는 장학회 소식지를 통해 보다 많은 동문들의 알림방 역할과 참여할 수 있는 窓口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장학회 창간 소식지 발간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기수 전문위원님(47期)과 이상진 총무이사님(45期)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의 소식지가 소중한 친구로서 우리의 삶속에 늘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설립목적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본 회의 목적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국내·외 장학사업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그들을 돕고, 회원들의 삶의 보람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크 디자인 설명

_ 늘푸른장학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디자인 요소입니다.

내용 · 회장단 및 회원 정리 · 전기수(전문위원)



<p>Mental health 정신건강을 상징</p>		<p>Physical health 육체건강을 상징</p>
--	--	--

늘푸른장학회의 공식 영문표기는 “Ever Green Youth & Peace Scholarship”입니다.

늘푸른장학회의 명칭이 고유명사이므로 정확한 영문표기는 늘푸른에 해당되는 영어 음운인 “NULPULEN” 이고, 장학회에 해당되는 영단어는 “SCHOLARSHIP” 입니다. 하지만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국내의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추구하는 의미를 알 수 있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는 영문을 찾아 보자라는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늘푸른에 가장 적합한 영문단어인 “EVER GREEN”, “YOUTH”, “PEACE” 3개의 영단어를 가지고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늘푸른은 정신적 육체적 젊음을 추구하는 것을 상징하는 순 우리말이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젊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할 때” 저절로 생동감 있으면서 심적으로 평화로운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늘푸른과 평화의 공통분모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지속적 변화입니다.

늘푸른을 유지하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무질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네가티브 엔트로피를 발생하게 해야 하는데 이는 부단한 자기변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지속적 변화를 통하여 늘푸른장학회가 우리 사회에서 작지만 제 역할을 하면서 사라지지 않고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늘푸른장학회의 주요사업은 젊은 청년 및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의 불씨를 심어 주는 장학사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사업 그리고 해외 빈민국 아동 장학사업입니다. 이를 통한 보람으로 우리 회원님들의 정신적 육체적 젊음 유지와 마음의 화평(평화)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따뜻한 기운이 가정과 직장 및 사업장 전체로 확산되어, 장학회의 발전과 더불어 가정과 사업장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현판식을 마치고...

정리 · 이상진(총무이사) 사진 · 이상진(총무이사)



지난 10월의 마지막밤에 늘푸른장학회 사무국 현판식을 하였습니다. 김호정 상임고문님과 김정구 청장님의 많은 임원 및 회원 참석으로 뜻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산디와 버드가족의 참석으로 국제적인행사가 되었고 두 분께도 특별회원증 전달도 하였습니다.

특히 조용현회장님께서 기꺼이 사무국을 사무실로 내어주시어 옥상에서 파티까지 할 수 있게 찬조하셨고, 김태화 상임위원님께서 사무국 현판을 찬조하셨고, 47김경희 재무위원님께서 떡을 찬조하셨으며, 산디와버드 또한 망고와 과일을 찬조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등등... 이 모든 덕택으로 늘푸른장학회 기금을 지출하지 않고 큰 행사를 할 수 있어서 더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임원과 회장단에서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에 만전을 기할수있도록 더 큰 노력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려니 회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임원 워크숍

정리 · 전기수(전문위원) 사진 · 이상진(총무이사)



사랑도 tip

상도(上島) · 하도(下島) · 수우도(樹牛島) 등 3개의 유인도와 학도(鶴島) · 잠도(蠶島) · 목도(木島) 등 8개의 무인도를 포함한다. 고성군에 속해 있었으나 1914년 통영군 원량면(遠梁面)으로 바뀌고, 다시 1955년 사랑면이 되었다. 상도(윗섬)에는 서부의 지리산(池里山)을 비롯, 동부에 옥녀봉(玉女峰) · 고동산 등 해발고도 200~300m의 구릉성 산지가 전개되어 있고, 해안선을 따라 완사지에 분포한 소규모의 농경지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산지이다. 하도(아랫섬) 또한 북부의 망봉(望峯) · 칠현산(七絃山) 등 섬 전체가 해발고도 200~300m의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사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지만, 수산업은 소규모의 연안어업일 뿐이며, 농가 비율이 높아 특용작물 및 원예작물이 재배된다.



늘푸른장학회 회장 조용현님과 총무단의 주최로 경상남도 소재 사랑도에서 워크숍을 하였습니다.
경비일체는 조용현 회장님과 상임위원님께서 찬조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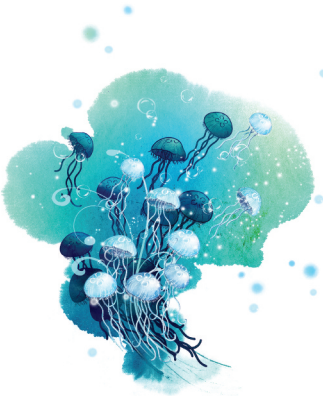


늘푸른 장학회 사랑도 워크숍을 갔습니다

늘푸른장학회 사업계획검토 및 결정 한결과 지난 10월 12일 임원회의에서 사업 및 예산의 방향성(홈페이지 게시)에 대해 검토한 부분을 확정(사업항목별 예산을 좀더 늘리는 방안) 하였고 회원들의 적극적 동참과 지속적 참여 및 후원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검토였으며, 2011년 회계연도의 정기후원금의 범위 내에서 항목별 예산의 최대 배정하여 대학생 장학금 지급, 청소년 지원 사업, 해외아동봉사사업, 사회적 취약계층 봉사사업 등에 예산 배정을 좀 더 늘이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의 결속력 및 친목유지를 위한 사업에 예산소규모 증폭과 찬조활용 송년의 밤, 산행대회, 정기총회 등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 일정으로는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월동 김장 나눔 사업(분회 회칙 3조에 의거)을 11월~12월 초 부산시 금정구 관내 '청소년' 가장 및 저소득층 가정지원, 부산시 금정구 관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 가정지원을 대상으로 김장 나눔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행사업으로는 9월 1일 창립총회 후 바쁜 일정으로 김장 나눔사업으로 불우 청소년 장학 지원사업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봉사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에는 청소년 장학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약속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월동김장 나눔사업

정리 · 이상진(총무이사) 사진 · 이상진(총무이사)



김장 tip

일반적으로 김치라고 부르는 배추김치의 영양적 특성을 보면 저열량 식품이며, 식이섬유의 주공급원으로 건조물 당 24%를 차지한다. 그리고 발효 중 생성되는 유기산 즉 젖산, 초산 등과 유산균은 정장작용을 한다. 김치의 식이섬유소는 변비예방과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고 몸속에서 청소작용을 한다. 김치유산균, 베타시토스테롤(식물성스테롤)과 다른 파이토케미칼(식물화학물질)들은 노화억제 및 항돌연변이, 항암효과를 나타낸다. 김치의 주재료는 녹황색채소 또는 배추, 무 등 십자화과 채소가 주재료이며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 양념과 유산균발효에 의한 유기산 등 발효의 맛과 유산균수도 요구르트의 유산균수와 비슷해 대장 건강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2011년 12월 16일 오후 2시

늘푸른아파트에서 사회소외계층 월동김장나눔사업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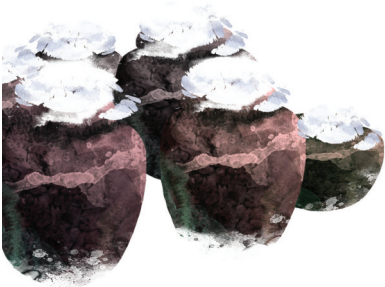


사랑의 뜻깊은 월동김장 나눔사업을 하였습니다

금정구내 사회지원계층 중 늘푸른아파트 316세대 지원 (저소득 독거노인 · 다문화 지원가정 · 중증 장애인가정 · 저소득 가정 · 새터민·탈북자 가족) 하였습니다. 금정구청 내 산하 어머니회 및 부녀회 일손지원을 받지 않고 늘푸른장학회에서 배추구입에서 김장의 완성 및 포장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완료해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 12일~12월 16일까지 구입, 양념 작업, 버무리 작업, 포장 작업의 모든 공정에 늘푸른장학회 회원님 및 임원들의 적극적 동참이 있었습니다. 월동김장나눔사업이 끝나고 추후에도 계속이어가고자 임원진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월동김장나눔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에 대한 논의의 안건은 장학사업에 비해 사회봉사활동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이 크게 책정된것에 대한 우려와 사회봉사사업의 내용이 왜 김치나눔 사업인것과 다른 품목에 대한 논의와 임원단의 의사결정과정에 회원들의 여론을 더욱 더 반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현실적인 집행의 어려움은 임원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산배정을 3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것과 김치업체 선정 재고는 320가구 지원(가구당 5kg-한박스)로 결정 되었습니다. 월동김장나눔사업에 함께해주신 모든 임원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드아시아, 캄보디아에서 어린이 공부방·화장실 건립 봉사

글 · 최희수 기자 기사 보도 · 부산일보 2012-01-16 (11:02:00)



국내·외 빈곤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스님)는 최근 세계 최빈곤 국가 중 하나인 캄보디아를 방문해 어린이공부방을 운영하고 마을과 학교에 공동화장실을 지어주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캄보디아의 오지인 뽀레이뱅주 뽀레이끄랑 마을과 끄로웃 마을에서 4박 6일 동안 진행됐다. 봉사팀은 의류 1천 100여 점과 의약품 20여 점, 학용품, 담요, 축구공 등 물품을 전달했다.

또 마을 주민들과 함께 모래, 벽돌을 나르고 땅파기 등 작업을 하며 공동화장실을 만들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부산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졸업생 장학모임인 '늘푸른장학회'가 동참해 물품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늘푸른장학회 조용현(56) 회장은 "지구촌 이웃을 위한 국제구호 교육사업에 관심을 갖고자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호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구호현장 방문’

정리 · 이상진(총무이사)

1월 6일 ~ 11일까지 4박 6일의 빠듯한 일정으로 캄보디아 구호 현장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늘푸른장학회의 미래에 해외봉사 사업과 더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안을 위해 대표로 김호정 상임고문님, 조용현 회장님, 김윤도 상임이사님, 이은숙 상임이사님, 김경희 상임이사님 다녀오셨습니다.

방문 경비도 적지 않은데 경비 일체를 본인 부담으로 하였고, 또한 김호정 상임고문님께서 학용품(스케치북, 연필, 크레파스, 분필 등...)을 50만원 상당을 용품을 찬조하셨고, 또 조용현 회장님의 오랜 친구이신 영도 신근식 산부인과 원장님께서 의약품(소독약, 설사약, 감기약, 파스 등...)을 100만원 상당의 약품을 찬조하시므로써 캄보디아 현지 마을주민에게 구호품 전달 하였습니다.

위드아시아 구호현장지 뿌레이끄랑 마을 방문하여

캄보디아 전근수지부장 마을현황소개 후 주민과의 만남의 장, 구호물품전달식과 화장실 건립현장 방문 및 자원봉사, 뿌레이끄랑 꼬로웃마을 어린이공부방, 라오마을 어린이공부방 견학을 하였습니다.

힘들고 바쁜일정 잘 마치시고 무사 귀환 하셨습니다. 오늘은 따뜻한것 같습니다. 훈훈한소식 늘푸른장학회 회원님 따뜻하시죠?



송년의 밤 행사

글 · 이상진(총무이사) 사진 · 이상진(총무이사)

Good bye... 2011

늘푸른장학회 송년의 밤 행사를 12월 16일 금요일 7시 상남회관(부산대학교)에서 가졌습니다.



늘푸른장학회 주관하고 45·46·47기가 후원 하였으며 43·44기 선배님 초청하였습니다.

창립총회부터 오늘까지의 보고와 회원님 사랑의 메시지까지 참으로 많이 듣고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늘푸른장학회를 위하여 화이팅! 거목을 만들어 보자고 다짐하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제1회 장학금 수여식

정리 · 전기수(전문위원)

2011년 8월 18일 목요일 제1회 장학금 수여식을 했습니다. 장학금은 1인당 100만원으로 3명 선정되었으며 대상자는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이민주, 이항미, 오동현 학생입니다.

첫회라는 의미로 행정학과 학생들로 선발되었으며 추후에는 사회과학대학 전체뿐만 아니라 초·중·고·대학교, 국내·외 사회적 약자들을 도울 것입니다. 많은 준비도 안된 진행이었고, 약간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조용현 회장님 회사 회의실이 준비가 잘된 덕으로 가슴 뭉클했던 행사였습니다. 장학생들의 밝은 모습에서 늘푸른 장학회가 더욱 발전해서 다음에는 더많은 이에게 더 큰 행복을 줄수 있도록 힘써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좋은 행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늘푸른장학회 회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장학금 수여식 행사에서 조용현 회장님께서 직접 케익을 준비하셔서 장학생에게 부상으로 주시면서 부모님과 축하파티를 하라고 격려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2회 장학금 수여식

정리 · 이상진(총무이사)

지난 2월 17일 금요일 17시 제2회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장학생은 행정학과 이경미, 이경미, 박중휘 사회복지학과 정지용, 정치외교학과 우지훈입니다. 사회자 박난희 감사위원님의 순조로운 진행으로 상임고문님과 회장님, 그리고 상임위원 또 회원님의 따뜻한 박수로 시작해서 뭉클한 감동을 가슴에 새기고 마무리 했습니다.

장학금은 한 학기 등록금의 약 50%의 90만원씩 지급되었으며 장학생에게 가족과 즐거움을 같이하라고 말씀하시며 조용현회장의 찬조로 케익 한개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마도 학생들에겐 아주 행복한 날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Love



|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소감을 보내왔습니다 |

우연히 보게된 공지글...

글 ·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이경미

학과 홈페이지에서 우연히 늘푸른장학회에 대한 공지글을 보았습니다. 공지게시판에 올라온 글로만 봤을 때는, 보통 여타의 장학재단과 차이점이 없어보였습니다. 증빙서류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나서, 감사하게도 장학생에 선정이 되어 장학금 수여를 위해 늘푸른장학회에 갔을 때, 제가 생각했던 장학회와 뭔가 다르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행정학과 교수님, 같은 행정학과를 졸업하신 선배님, 또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들이 대부분의 늘푸른 장학회의 구성원이셨습니다.

그랬기에 많은 친밀감과 유대감이 느껴지는 장학회였습니다. 이런 장학회라고는 생각도 못했기에 어안이 병병하기도 하면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회가 나에게도 찾아오는구나 싶어서 신기했습니다. 후배들을 생각하시는, 또 제자를 생각하시는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진 장학회의 장학금을 수여했기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받은 이 마음과 뿌듯함을 저 뿐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받은 만큼 저 또한 다음에 사회에 나아가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냥 일반 장학회인줄 알고 자기소개서를 너무 바쁘게 썼었는데, 교수님이 그 소개서를 읽으셨더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런 장학회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도 못했기에 나중에 집으로 돌아갈 때 정말 후회가 엄청 밀려들어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성의를 보였다면 좋았을 텐데, 확실히 교수님, 선배님들이 계신 장학회라서 그런지,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도 이런 아쉬움이 더욱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4학년이 됩니다. 대학교 생활을 뒤돌아보면, 내가 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후회가 엄청 많이 듭니다. 하지만 4학년의 시작을 이렇게 좋은 분들과, 또 좋은 기회를 접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올해는 정말 늘푸른장학회분들이 주신 기회를 잡은 만큼 대학 마지막 1년을, 후회가 많이 남았던 지난 3년보다 더 잘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생각뿐만 아니라 감사한 만큼,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행정학과 학우 분들이 늘푸른장학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늘푸른 장학회가 더 번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소감을 보내왔습니다 |

저에게 찾아온 '기회'

글 ·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이경미

이번 방학은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고 싶다는 욕심에 조금은 뻑뻑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라 해봤자 주말에 편의점에서 8시간씩 근무하는 것이고 일 자체는 힘들지 않았지만 행정고시라는 목표를 세우고 나서는 매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면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 제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늘푸른장학회의 장학금은 더욱 뜻 깊습니다. 제가 제 꿈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저게 찾아온 '기회' 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장학금을 통해 저는 사고 싶은 책, 보고 싶은 인터넷 강의를 비교적 마음 편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나무 아래 입을 벌리고 누워있다 해서 나에게 감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주변 환경 때문에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을 잃고 노력도 해보기 전에 겁을 먹는 청춘이 있다면,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꿈을 이룬 미래의 제가 그 청춘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제 작은 힘을 늘푸른장학회를 통해 보태고 싶습니다.

20년 뒤 저도 누군가를 위해...

글 ·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박종휘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중인 박종휘라고 합니다. 장학생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설레었습니다. 늘푸른장학금은 수혜자에게 재정적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저뿐만 아닌 많은 학우들에게 '내가 힘들더라도 누군가 자신을 도와줄 것이고, 또 만약 훗날 가정적 형편이 안 좋아지더라도 공부를 포기해야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굳은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기에 훌륭한 장학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년 뒤 저도 누군가를 위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호정 교수님, 회장님 그리고 장학회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소감을 보내왔습니다 |

강한 감정 하나는 '감사한 마음'

글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지용

수여식 후 지하철을 타고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장학회에 참여했던 장면 하나하나를 떠올려 보았는데 그 중 강한 감정 하나는 '감사한 마음' 인데요. 특히 저의 경우 감사한 마음이 더욱 와 닿았는데 늦게 도착한데다 기다리고 계신 분들을 직접 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도착 전에 학생의 상황을 알 수 없어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하셨을까 하는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를 마친 선생님들께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셔서 그 감사한 마음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장학회의 의미, 조용현 회장님께서도 본 장학회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저에게 있어 처음으로 외부에서 받은 이 장학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수여식 끝날 때 언급해주셨던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 과정(APMP)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마음이 담긴 글들을 일부 읽으면서 이 장학금에는 선생님들의 의미가 하나하나 모여진 장학기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배우고 있고 너무나 좋아하는 학문인 사회복지학 그리고 심리학. 이 학문들이 말하고 있는 인간을 향한 뜻처럼 다시 다짐하는 계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도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의 한 줌 빛!

글 ·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우지훈

우선 장학금을 주신 늘푸른장학회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을 정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끼는 와중에 이 장학금은 정말 저에게 어둠 속의 한 줌 빛과 같습니다. 저 또한 훗날 사회에 진출하여 후배님들 뿐만 아니라 힘든 와중에 학업에 몰두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귀감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든든한 늘푸른장학회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향후 일정

정리 · 임원회의 의결사항

1. 산행대회

주최·주관 : 늘푸른장학회

일시 : 2012년 4월 21일(토) 9시 범어사역 2번 줄구 집결

장소 : 금정구 선동마을 돌레길

내용 : 돌레길걷기 · 체육행사(족구)

참가대상 : 늘푸른장학회 회원 및 비회원

기념품 : 김윤도 상임위원 찬조

시상품 : 조용현 회장 찬조

2. 2학기 장학금

수여식 및 국내

봉사활동 :

9월 중 계획예정

3. 정기총회 :

8월 말경

계획예정

4. 해외 장학봉사 활동

후원국 : 필리핀

일 시 : 10월 11일 (목) ~15일(월)

후원방식 :

① 직접후원 : 오르간(중고) 외
200만원 예상

② 간접후원 : 학용품 · 헌옷 ·
신발 · 가방(회원기증)

농구공(이은숙 상임위원 찬조)

참가경비 : 교통비 및 체류비(개인부담)

참가대상 : 회원 및 임원

늘푸른장학회 추진경과보고

정리 · 전기수(전문위원) 사진 · 이상진(총무이사)



1. 2010년 8월하동 WORKSHOP _ 45기 46기 47기
2. 장학회설립을 위한 발기금 모금 _ 2010년 9월 이후 _ 2010년 12월
3. 늘푸른장학회 추진과정
 - ① 1기 : 2011년 2월 이후 _ 7월 동문회 사업과 장학회사업의 병행
 - ② 2기 : 2011년 7월 19일이후 _ 동문회사업과 독립된 장학회 사업추진, 장학회 회칙 제정위원회의 결성
 - ③ 3기 : 2011년 8월 4일 _ 본회 명칭 공모에 의해 늘푸른장학회로 정함, 회칙제정안 의결
회장 및 임원 단 추천, 창립총회 준비위원회
 - ④ 2011년 8월 18일 _ 장학금 지급 총회 때 추진 반기로 의결, 제1회 늘푸른장학회 장학금수여식
4. 2011년 9월 1일 늘푸른장학회 창립총회 일

회칙 중요사항

정리 · 회칙 제정위원회 사진 · 이상진(총무이사)



제4조 (자격)

- ① 정회원 _ 정회원은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생 중 본 회 목적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장학회 설립기금을 납부하고 정기 후원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추후 장학기금 100만원 이상 납부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년(年)정기후원금 납부자로 한다.
- ② 특별회원 _ 특별회원은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지만, 본 장학사업의 취지에 적극 동참하는 사람으로 장학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쳐 특별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특별회원의 자격은 제3조 1호의 정회원의 자격을 준용한다.
- ③ 명예회원 _ 명예회원은 본 회 설립기금모금에 동참하여 설립기금을 납부하고, 정기후원금 납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회원으로 한다. 단, 명예회원이 정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자 할 때는 정기 후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의 자격 및 임기)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회장 및 총무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장학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본회의 발전적 운영에 공이 있을 시 연임할 수 있다. 단, 상임고문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제9조 (장학운영위원회 설치)

본회 장학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및 본 회의 제반안건을 심의 결의하기 위해 장학운영위원회를 둔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10조 (장학운영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제10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 ① 본 회 장학기금의 조성 운영 및 관리
- ②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정
- ③ 제반 사회봉사사업을 위한 의결
- ④ 본 회의 제반안건



고정성 준비위원장



조용현 회장



원정희 금정구청장



김호정 상임고문

늘푸른장학회 NEWS



석사 과정에 계신 신도신성상사 양석곤 대표님

석사 과정에 계신 신도신성상사 양석곤 대표님께서 가입하셔서 많은 금액을 후원 하셨습니다. 사무국에서 간단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석사 과정에 계신 양석곤님께서 300만원 후원하셨고, 그에 따른 장학금 기탁증서를 조용현 회장님께서 직접 전달 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분은 김호정 상임고문님, 조용현 회장님, 김윤도 상임위원님, 전기수 전문위원님, 강주택 회원님, 임용순 회원님, 전창재 부총무님, 그리고 양석곤님입니다. 계속적인 홍보와 관심으로 이런 훈훈한 소식이 계속 전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한번 양석곤 대표님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해외에서도 장학후원금이 전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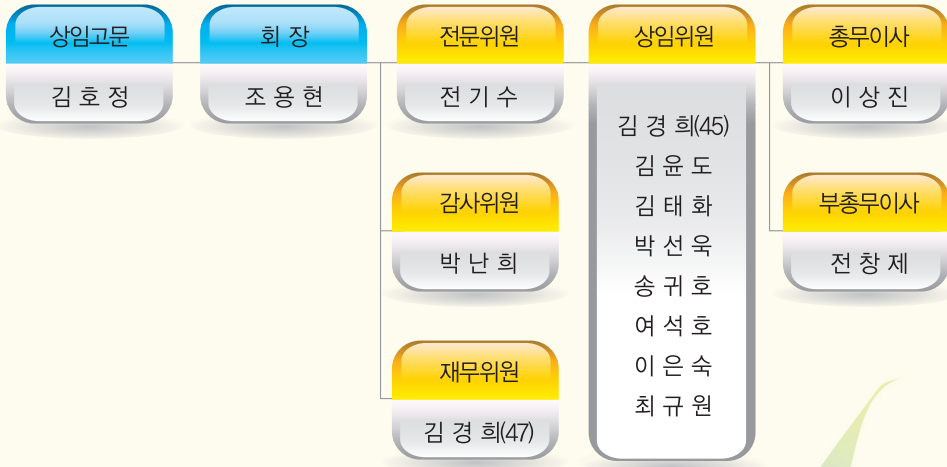
조용현 회장님의 소개로 우리 회원님들과도 국적을 초월하여 친분관계가 있는 산디(Sandy)와 버드(Bird)님께서 늘푸른장학회의 사업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동참의 뜻을 밝히면서 늘푸른장학회의 명예회원으로 필리핀 현지에서 각각 \$ 500 을 장학기금으로 직접 회장님께 직접 전달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2012년 1학기 장학생선발 회의 결과입니다 정리 · 임원회의 의결사항

- ① 2012년 1학기 장학생 선발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 5명
- ② 전체 등록금의 반액 : 80만원 ~ 90만원 내외
- ③ 선발 방식 : 김호정상임고문의 자문하에 공개 선발
- ④ 선발 기준 : 저소득층 자녀, 성적, 기타
- ⑤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 내 늘푸른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개 알림 :
2012년 1월 16일 이후 ~ 2012년 2월 4일 전후
- ⑥ 장학금 수여식 : 2월 13일 ~ 2월 19일 예정
- ⑦ • 주무 : 늘푸른장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 • 자문 : 상임고문님의 전문적인 자문
• 실무 담당자 : 박난희 감사위원, 전기수 전문위원, 이상진 총무이사



늘푸른장학회 위원조직도



늘푸른장학회 후원자 _ 가나다순

강주택 강희숙 고점성 구광모 권택준 김경호 김경희 김경희 김나윤 김덕영 김석수 김수용 김윤도
 김정훈 김정희 김창수 김철훈 김태완 김태화 김호정 김홍조 김홍재 김희진 류희령 민선기 박기조
 박난희 박명희 박선옥 박우근 박재민 방준형 백종헌 버 드 산 디 서연자 석민주 석인선 송귀호
 안광원 안지혜 양석곤 여석호 오일동 원정희 윤 철 이동근 이배의 이봉원 이상진 이승근 이승운
 이은숙 이창섭 이행진 임경남 임용순 임정숙 임호택 전기수 전연주 전창제 정영섭 정판호 조용현
 주은숙 최규원 최영남 최종운 최태식 추소이



따뜻한 사랑 나눠주세요!

후원 계좌번호 : 늘푸른 장학회 조용헌 부산은행 098-12-056604-3
모금방식은 1구좌 년(年) 12만원 (월 1만원) 이상으로 하며 회원을 비롯한
누구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후원 문의전화

전문위원 전 기 수 T. 010-6595-5592 (골프웰 잉글리쉬 아카데미 원장)
총무 이 상 진 T. 010-9219-0455 (예원디자인 대표)
홈페이지 <http://cafe.daum.net/pusan.apmp>



헬퍼스 하이 효과

실제로 남을 도우면 느끼게 되는 최고조에 이른 기분 즉 '헬퍼스 하이'
(Helper's High)라는 것도 있습니다. 남을 돕는 봉사를 하고 난 뒤에는 거의
모든 경우 심리적 포만감 즉 '하이' 상태가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엔돌핀
이 정상치의 3배 이상 분비되어 몸과 마음에 활력이 넘치게 된다고 합니다.



사무국 찾아오는 길

